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20년 2월 10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미경 의원

“동별 신년인사회, 누구를 위한 자리인가?”

최미경 의원(비례)은 지난 2월10일 열린 제23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강북구가 2020년 신년을 맞아 실시한 동별 신년인사회와 관련된 발언을 펼쳤다.

최 의원은 먼저 2020년 경자년 새해의 시작을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전동이 모여 신년인사회를 했고 동별로도 신년인사회를 진행한 사실을 밝히고 “여러동의 신년인사회를 마치고 동별 신년인사회 과연 필요한가? 누구를 위한 자리인가? 라는 질문을 들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동별 인사회에서는 주민의 민원을 듣는 자리라 했지만, 형식은 각 동에서도 절반이상의 시간이 축사와 구정운영계획의 반복, 그리고 작년 민원의 결과를 1년이나 지나 보고 받는 시간으로 채워졌다.”라며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에는 용건만 간단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어야 하고, 하루에 두 번 진행될 경우 다음 동으로 이동하기 위해 진행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동별 신년인사회



가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되기 위해 먼저 내빈소개, 축사 등을 생략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마주보는 대형이나 원형 등 앉는 자리의 변화를 주어 주민들도 서로 얼굴을 보며 소통하고 서로의 의견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위해 작년 민원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달라고 제안한 뒤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는 이름만 공개하도록 하고 나머지 개인정보는 담당직원이 받고 주민의 목소리로 편하게 이야기 하는 시간으로 최대한 허락해달라고 주장했다.

최미경 의원은 “굳이 각 동을 돌면서 신년인사회를 진행하는 취지를 잘 살려 각 동의 주민들이 불편하신 점들을 더 잘 들 수 있는 자리로 동별 신년인사회가 자리매김 했으면 하는 바람에 의견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북일보 4면

동별 신년인사회 과연 필요한가? 누구를 위한 자리인가?

최 미 경 의원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최미경 의원은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별 신년인사회 과연 필요한가? 누구를 위한 자리인가?”에 대해 주민들에게 질문을 들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전체가 모여 진행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는 강북구의 새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라고 하였고, 동별 인사회에서는 주민의 민원을 듣는 자리라 하였지만, 형식은 각 동에서도 절반이상의 시간이 축사와 구정운영계획의 반복, 그리고 작년 민원의 결과를 1년이나 지나 보고 받는 시간으로 채워졌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에는 용건만 간단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어야하고, 하루에 두 번 진행될 경우, 다음 동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진행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반복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미경 의원은 소개와 축사 시간의 절약, 공간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이론도 있는 만큼 서울시 대시민 업무

보고회 전경 등을 참고하여 마주보는 대형이나 원형 등 앉는 자리의 변화를 주어 주민들도 서로 얼굴을 보며 소통하고 서로의 의견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위해 작년 민원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 줄 것과 주민의 목소리를 들으실 때에는 이름만 공개하도록 하고 나머지 개인정보는 담당직원이 받고, 주민의 목소리로 편하게 천천히 이야기 하는 시간으로 최대한 허락해줄 것을 제안했다.

최미경 의원은 각 동의 주민들이 불편하신 점들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동별 신년인사회가 자리매김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cds0012000@hanmail.net>

〈5분 자유발언〉

동별 신년인사회 효율적 운영 필요해

최미경 의원, “주민 이야기에 더 집중해야”

최미경 강북구의원이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동별로 진행되는 신년인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빈 축사 생략 등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동별 신년인사회가 절반 이상의 시간이 축사와 구정운영 계획 반복, 작년 민원 결과를 보고 받는 시간으로 채워졌다”면서, “원래 취지대로 동별 신년인사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

리가 되기 위해서 내빈소개, 축사 등을 생략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늘려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공간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를 가져 온다”면서,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소통할 수 있도록 마주보는 대형이나 원형 등 앉는 자리 배치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작년 민원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과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때 그 자리에서 개인정보를 다 공개하는 것을 이름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담당 직원이 기록할 것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미경 의원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듣겠다는 동별 신년인사회 취지를 잘 살려 주민들이 불편한 점들을 편하게 천천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해 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미경 강북구의원

서울포스트 4면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 5분 자유발언

동별 신년인사회 과연 필요한가?



지난 10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3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미경(비례)의원이 ‘동별 신년인사회 과연 필요한가’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최미경 의원은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전동이 모여 경자년 새해 계획을 발표하며 신년인사회를 하였고, 또 동별로도 진행한 신년인사회에서는 절반이상의 시간이 축사와 구정운영계획의 반복, 그리고 작년 민원의 결과 1년이나 지나서야 보고 받는 시간으로 채워졌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에는 용건만 간단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어야하고, 하루에 두 번 진행될 경우, 다음 동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진행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반복되었다.”면서 동별 신년인사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최 의원은 먼저 ▲ 내빈소개, 축사 등을 생략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늘려 줄 것 ▲ 동별신년인사회 공간에서 원형 등으로 좌석 배치에 변화를 주어 서로 얼굴을 보며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참고해 달라 ▲ 지난해 민원보고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으로 대체해 줄 것. ▲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는 이름만 공개하도록 하고 나머지 개인정보는 담당직원이 받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 '5분 자유발언'

‘동별 신년인사회 필요성 관련’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이 지난 10일 열린 제23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20년 신년을 맞아 실시한 동별 신년인사회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최미경 의원은 2020년 결자년 새해의 시작을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전동이 모여 신년인사회를 했고 동별로도 신년인사회를 진행한 사실을 밝히며 "여러 동의 신년인사회를 마치고 동별 신년인사회 과연 필요한가?, 누구를 위한 자리인가? 라는 질문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미경 의원은 "동별 인사회에서는 주민의 민원을 듣는 자리라 했지만, 형식은 각 동에서도 절반 이상의 시간이 축사와 구정 운영계획의 반박, 그리고 작년 민원의 결과를 1년이나 지나 보고받는 시간으로 채워졌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에는 용건만 간단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어야 하고, 하루에 두 번 진행된 경우 다음 동으로 이동하기 위해 진행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동별 신년인사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되기 위해 먼저 내빈소개, 축사 등을 생략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또 "마주보는 대형이나 원형 등 앉는 자리의 변화를 주어 주민들도 서로 얼굴을 보며 소통하고 서로의 의견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위해 작년 민원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고 제안한 뒤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는 이름만 공개하도록 하고 나머지 개인정보는 담당직원이 받고 주민의 목소리로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최대한 허락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최미경 의원은 "굳이 각 동을 돌면서 신년인사회를 진행하는 취지를 잘 살려 각 동의 주민들이 불편하신 점들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동별 신년인사회가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에 의견을 밝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기자